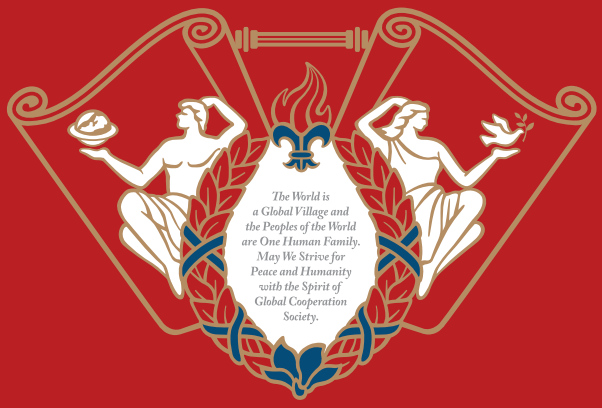
2023

학문과 평화

대학다운 미래대학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가곡 '목련화'에 담긴 경희의 얼 "새 시대의 선구자"

변화와 창조를 향한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로 시작하는 가곡 '목련화'의 노랫말은 경희학원 설립자 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이 곡에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경희의 얼이 녹아있습니다.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 "새 시대의 선구자", "함께 피고 함께 지니 인생의 귀감이로다"라는 노랫말에도 나타나듯 목련은 선구적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두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일궈 가자는 열정과 염원을 품고 있습니다. '변화와 창조를 향한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 변화의 힘을 발견하고 세상과 교감하라.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목련이 품은 참뜻입니다. 경희는 목련을 교화로 삼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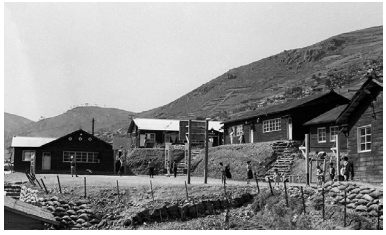
1949년, 경희의 역사가 시작된 해입니다.
경희는 1년 후, 6·25 전쟁의 총성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1951년 부산 동광동
판자 교사 세 채에서 학생 122명, 교직원 5명과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한반도,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기만 했던 신생 대학.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희는 무에서 유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경희는 학생 3만 4,535명,
교수 1,396명, 직원 524명이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역사의 배경엔 경희정신이 있습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경희는 그 다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오한 학술연구 온갖 노력 바치고
변전하는 세계의 진리를 연구하여…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
경희가 함께해 온 남다른 가치입니다.

1949 —— 1979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체계 구축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다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6·25 전쟁 중에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교육입국·敎育立國)는 뜻을 세우고, 1951년 5월 18일 신흥초급대학(1949년 설립)을 인수했습니다. 피란지 부산에서 태동한 경희는 1954년 서울캠퍼스 시대를 연 데 이어 1960년 교명을 신흥에서 ‘경희(慶熙)’로 개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합니다. ‘유아 교육에서 대학원 교육까지’라는 구상과 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남·여 중고등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인 교육의 철학과 비전이 일관된 교육체계, 전일적 학술체계 ‘학교법인 경희학원’ 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49. 5. 12
신흥초급대학(2년제) 설립 가인가

1951. 5. 18
신흥초급대학 인수
『문화세계의 창조』 발간

1951. 8. 20
부산 동광동 가교사 신축 및 개강
교훈 ‘학원의 민주화·사상의 민주화·생활의 민주화’ 발표

1952. 2. 3
정규 신흥초급대학 설립 인가

1952. 12. 9
4년제 정규대학 ‘신흥대학’ 설립 인가

1953. 3. 1
교기 및 교가 제정

1953. 3. 20
부산 동대신동 소재 교지 구입 및 신교사 낙성 이전

1953. 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교지 30여만 평 확보

1954
국내 대학 최초의 마스터플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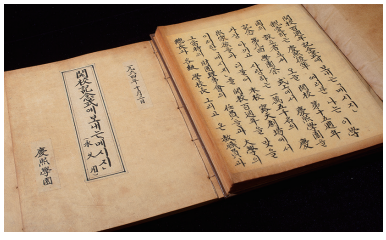
1954. 3. 24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복귀

1954. 7
문맹퇴치운동, 조림녹화사업 등 농촌계몽 봉사활동 전개

1955. 2. 28
종합대학교 설립 인가

1960. 3. 1
‘신흥’에서 ‘경희(慶熙)’로 교명 변경

1964. 10. 2
9회 학원제에서 경희학원 설립자의 개교 50주년·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채택



1965. 4. 27
한의과대학 전신인 동양의과대학 합병
경희의료원 착공식 개최

1965. 6. 29
경희학원 설립자가 결성 주도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창립총회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최

1966. 5. 18
잘살기 운동 헌장 제정 및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1968. 6. 18 ~ 20
세계대학총장회(IAUP) 2차 회의
경희대에서 개최

1971. 10. 5
경희의료원 개원

1975. 10. 28
밝은사회운동 전개

1976. 3. 3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개원

1979. 1. 10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교지 확보 및 설립 인가

1979. 5. 18
개교 30주년 기념 ‘경희의 탑’
(밝은사회운동탑, 잘살기운동탑) 제막

1979. 10. 28
경희대-로마클럽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1980 —— 2008

경희의 평화사상을 세계로, 미래로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주도하다

1980년대 들어 국제캠퍼스와 광릉캠퍼스가 새롭게 태동했습니다. 경희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학, 공학, 예술, 체육 등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도 내디뎠습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해’가 36차 UN 총회에서 15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결, 선포됐습니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결의로 UN에 전달된 이 제안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회고했듯, 동서 냉전이 종식을 고하는 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희의 평화사상은 교육과 연구,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1. 6. 28 ~ 7. 3
경희학원 설립자 6차 IAUP 총회에서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제안

1981. 11. 30
경희학원 설립자가 제의한
‘UN 세계평화의 날/해’가
36차 UN 총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제정

1982. 9. 21
1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후 매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4년부터 Peace BAR Festival로 확대)

1983. 10. 29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설립 인가

1984. 9. 25
광릉캠퍼스 교지 확보 · 평화복지대학원 개원

1986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세계시민교과서』 발간

1993. 12. 10
평화복지대학원, 교육기관 세계 최초로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1997. 4. 18
천문대 변광성 발견(‘경희성’으로 명명)

1998. 12. 14
경희의료원 인간체세포 복제 실험 성공

1999. 9. 20
『동양의학대사전』(전 12권) 발간

1999. 10. 10
1999 서울NGO세계대회 개최

1999. 10. 11
평화의 전당 개관

2000. 11. 30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 인가

2001. 9. 28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문 준공

2006. 6. 12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2007. 7. 30
수원캠퍼스, ‘국제캠퍼스’로 명칭 변경

2009

대학의 사회적 책무, 지구적 확산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비전 선포

경희는 2009년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했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이라는 비전과 함께 창학 초기부터 펼쳐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교육, 연구, 실천 역량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경희는 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56계단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상승 추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상 강화는 학생 만족도로 이어져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 2위에 올랐습니다. 경희가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9. 5. 5 ~ 8
세계시민포럼(WCF),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창립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9. 5. 6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구적 존엄 구현 (Towards Global Eminence)' 개최

2009. 12
석학초빙제도 도입

2010. 7. 2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 비전 선포

2011. 3. 1
후마니타스칼리지, 지구사회봉사단 (현 글로벌봉사팀) 출범

2011. 5. 17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 선정

2011. 8. 24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서울·국제캠퍼스 통합 운영 승인

2011. 9. 15
UN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서울 평화의 전당과 뉴욕 UN 본부에서 동시 개최

2012. 12. 21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선포

2013. 3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

2013. 5. 18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발간

2015. 5. 22 ~ 24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공동 주최

2015. 6. 5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발간

2017. 5. 17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 개관

2017. 10. 13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평화음악제 개최

2017. 12
캠퍼스 종합개발 'Space21' 1단계 완공

2018. 10. 5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2018. 12. 31
서울캠퍼스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2019. 3. 4
신입생 전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도입

2019. 5. 17
경희 70주년 기념식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 지속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개최

2019. 12. 9
국가고객만족도 5년 연속 사립대 2위

2021. 12. 3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2. 3. 1
첨단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과학과) 신설

2022. 5. 12
AI 서버실·X-Space 구축

2022. 8. 5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대가 개발한 자기장측정기 탑재

2022. 11. 21
융합기술연구소 개소

2023. 6. 1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42위

2023. 8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발간

2024. 3. 4
반도체공학과, ICT광역 등 모집단위 신설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Towards Global Eminence 2030'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상징화한 본관 부조상.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것이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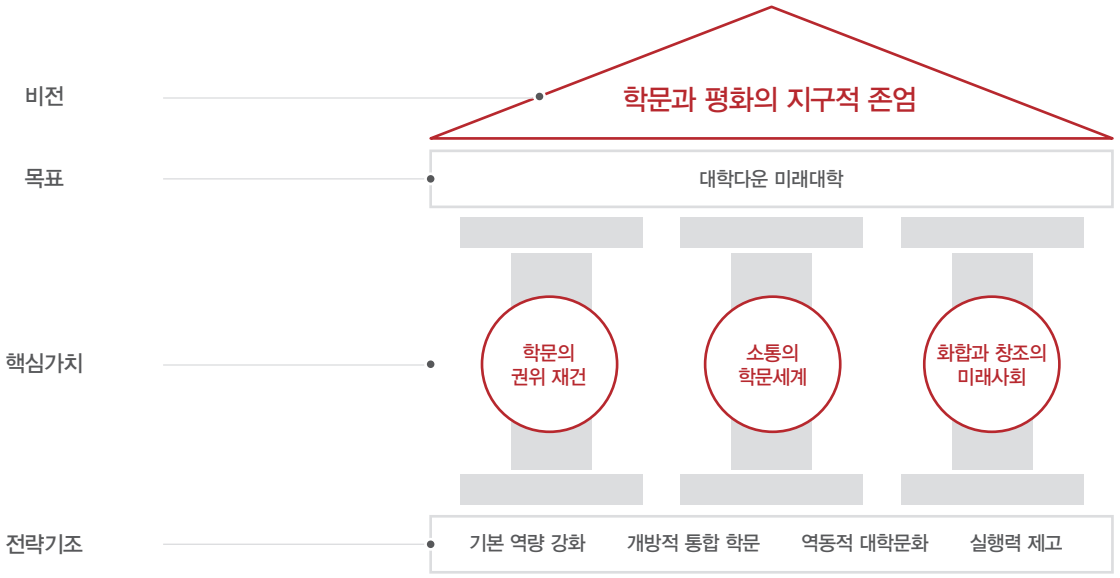
인류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문명사적 전환은 '예측 불허의 미래'를 불러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인지, 암울한 재앙이 될 것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늘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희는 되묻고 고민했습니다. 시대 변화를 주시하며 대학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학,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 성찰의 결과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Towards Global Eminence'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했습니다. 경희는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은 이론과 현실, 학술과 실천, 과거와 미래, 지역과 지구를 창조적으로 연계합니다. 인류문명, 미래과학, 바이오 · 헬스,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 학습 · 연구 · 실천 환경을 구축합니다.

> "'학문과 평화'의 역사와 전통 위에서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롭게 약진합니다"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롭게 약진합니다. 교육 · 연구 ·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래비전체계도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경희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를 평가하는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전 항목에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6개 항목은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42위 · 국내 2위…일자리 · 경제성장 세계 11위 달성
17개 전 항목 순위권 진입…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다각도 기여

경희가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42위, 국내 2위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경희는 17개 목표 모두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8개 목표는 세계 100위권, 6개 목표는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1981년 UN이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을 제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노력해 온 경희는 SDGs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 연구, 실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학 최초로 시행하는 전교생 대상 세계시민 교육에 이어 SDGs 연계 전공을 확대했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대학에 주어진 책무 중 하나입니다"

세계 11위와 20위에 오른 양질의 일자리 · 경제성장(SDG 8), 산업 · 혁신 · 인프라(SDG 9)와 관련해서는 교내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경희는 창업문화–인프라 지원–사업화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원스톱 창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홍릉 바이오 · 의료 창업센터와 삼의원 창업센터를 개관해 창업 인프라를 완비했습니다. 캡스톤디자인, KHU Valle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건 라이프 확산을 위한 기업을 창업한 호텔관광대학 학생들은 창업센터 공간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60개 스타트업이 창업센터에 입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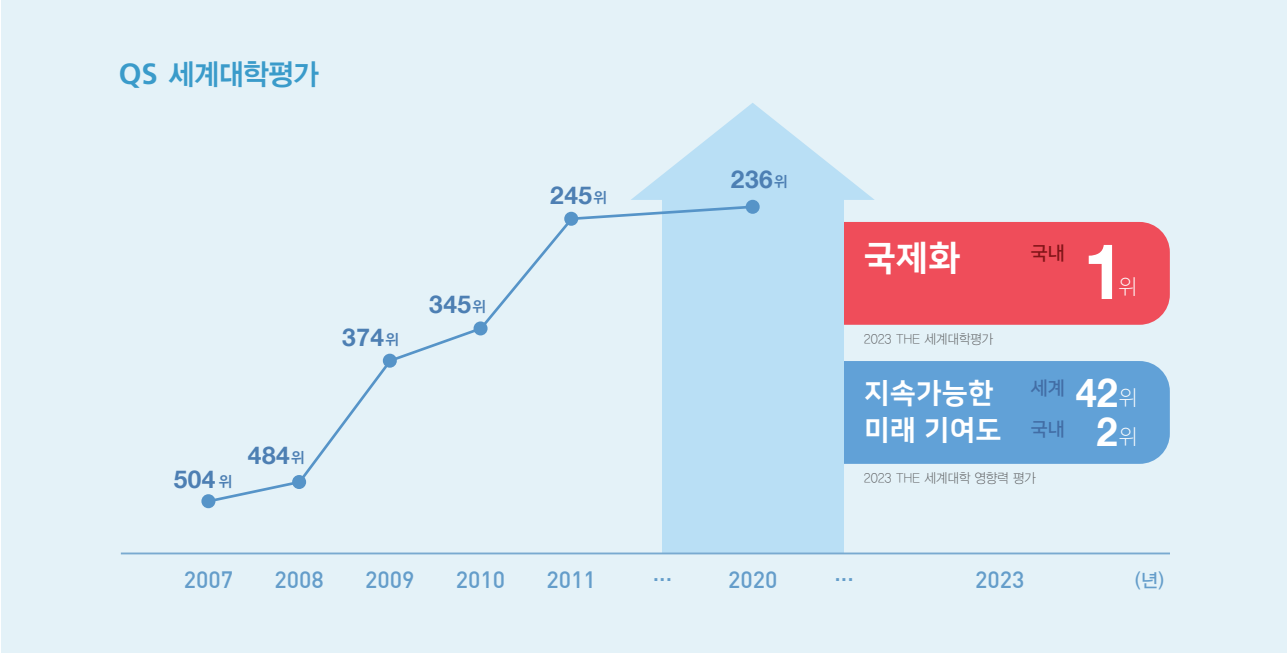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

'QS 세계대학평가' 5년간 259계단 올라…상승 추이 이어져
학생 만족도 조사 5년 연속 사립대학교 부문 2위

경희는 2007년부터 2011년 5년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59계단을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상승 추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희의 위상 강화는 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학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과와 교수가 늘어났습니다. 스마트관광원 박상원 교수와 식품영양학과 임종환 고황명예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에 선정됐습니다. HCR은 논문 피인용 횟수가 세계 상위 1%인 연구자를 말합니다. 임종환 교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생분해성 포장재 연구를 지속하며 7년 연속 HCR에 선정됐습니다.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은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KPLO)에 탑재된 자기장측정기를 개발하며 우주 개척 시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개교 40주년 기념 '웃는 사자상'



학문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

전 학문 분야 고루 발전, 세계적인 학과 늘어…호텔관광학 세계 10위
정보통신공학, 국제개발, 간호, 현대언어 분야 세계 100위권 올라

경희는 각 학과 및 단과대학(원)의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등 전 학문 분야가 고루 발전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각 학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는 대학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관광학 분야는 중국의 상해교통대가 매년 발표하는 학문 분야 평가 'Global Ranking of Academic Subjects(GRAS)'에서 2023년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평가에서 정보통신공학 분야는 세계 24위(국내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경희는 각종 세계대학 평가에서 호텔관광학, 정보통신공학과 함께 국제개발학, 간호학, 현대언어학 분야에서 세계 100위 안에 자리매김했습니다.

2023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 순위

순위	학문 분야
10	호텔관광학
24	정보통신공학(국내 1위)
101~150	나노과학·나노기술, 전기·전자공학, 교통과학기술(국내 2위), 의공학, 에너지공학, 식품공학(국내 2위)
151~200	재료공학

2023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순위

순위	학문 분야
51~100	호텔관광학, 국제개발학, 간호학, 현대언어학
101~150	스포츠 관련학
151~200	건축학, 약학, 농·임학, 지리학, 언어학, 경영학, 영어영문학

모든 의학 계열 단과대를 갖춘 대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에 이르는 종합의학 계열 확립
의학 계열 단과대학 5개 · 의료기관 2개 운영

경희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을 포괄하는 의과학을 국내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의학 계열의 모든 단과대학을 갖추고, 경희의료원(1971년)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2006년)을 개원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암을 넘어선 삶을 추구하며 개인의 인간다움(Humanitas)을 회복하는 후마니타스암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 연구, 교육,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 “경희의 의학 계열 단과대학과 양 의료기관은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온 의학 계열 단과대학과 의료기관이 내실 강화와 시설 재정비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 단과대학은 양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확대하며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과대학은 교육의 탁월성을 인정받아 해당 교육평가원에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백신 R&D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 · 지원한 결과, 경희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부터 5년간 1,127억 원 규모의 백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앞 잔디광장에 세워진 ‘건강의 여신상’. 건강의 여신상은 “환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인류를 보듬는다”는 ‘경희 의학’의 의지와 미래상을 표현합니다.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한 대학

1981년 UN에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제안, 평화 향한 큰 전진
교육·연구·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희의 평화사상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입니다. 경희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해 매년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합니다.

9월 21일은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UN은 1981년, 세계평화의 날과 함께 세계평화의 해(1986년)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해 전쟁 발발이 우려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평화의 해 첫날, 미국과 소련 정상은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축 회담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돼온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평화의 날/해는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하나의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입니다.

조영식 박사는 1981년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6차 세계대학총장회(IAUP) 총회에서 “UN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총장 600여 명은 전원 일치로 이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희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도움을 얻어 의안을 UN에 제출했습니다. 그 해 11월 36차 UN 총회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안을 15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文化世界(문화세계)의 創造(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

경희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학문적 소임을 다하되, 그 학문이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희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경희의 교가는 "온오한 학술 연구"를 노래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의지,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를 호소합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학생은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를 꿈꾸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갖춰나가고, 교수는 석학(碩學), 대가(大家), 거장(巨匠)의 꿈을 추구하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해결해나가면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학’. 이것이 경희가 추구해 온 대학의 참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학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술 역량을 강화해 온 결과,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학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도입한 강의 모습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

경희가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를 기조로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양 · 전공 · 실천
연계 강화한 경희 교육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자 학술기관으로, 교육, 연구의 탁월한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본연의 책무입니다. 경희는 그동안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학술과 실천을 결합하며 문명 전환을 선도해 왔습니다. 구성원이 긍지를 느끼고 그것이 새로운 포부로 이어지는 대학, 그 노력이 미래사회와 세계에 이바지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 융합형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한편, 인접 학문과의 소통으로 학생들이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경희는 학술 성취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와 세계로 이어지는 실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지구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교육, 연구, 실천을 결합한 사회공헌 기구를 설립하고, 지구적 실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천 및 봉사 활동과 연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힘을 키워줍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후마니타스' 교육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재발명하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후마니타스(Humanitas)입니다. 경희의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탁월한 인간,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의 성원'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적 교양교육을 제공합니다. 인문, 사회, 과학을 아우르는 융합 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빅뱅에서 문명까지), 사유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글쓰기', 소통 역량으로서 영어를 필수교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역별 배분이수교과와 독립연구, 외국어, 체육, 예술 등을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를 두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인류 문명, 우주를 탐색하며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세계시민 의식과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 창의적 연구 · 실천 영역을 학생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연구 등을 통해 확대됩니다.

국내 대학 최초 시행
전교생 '세계시민교육'

경희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원, 즉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내에서 경희대가 최초입니다. 학생들은 기후위기, 생태 · 환경 문제, 민주주의 위기 등 지구적 난제가 자기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 구성되는 삶의 존재 조건을 이해하면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토론하고, 공동 프로젝트(GCP; Global Citizen Project)를 통해 그 사유를 실천으로 확장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마주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학생이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오비스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스스로 과제 설정·수행

학생들은 경희 캠퍼스에서 융합형 · 사회맞춤형 교육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합니다. 학과, 단과대학, 캠퍼스를 넘나드는 융합전공과 다전공을 확대했고, 기업과 손잡고 사회맞춤형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독립심화학습,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 주제를 선정해 지도교수와 함께 심층 탐구하고, 최신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경희는 미래교육 · 학습으로 대전환을 위해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학생설계전공을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직무를 위해 특화한 교육이며, 학생설계전공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꿈에 도전하면 지원하는 '꿈도전장학'

경희는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꿈도전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교내 장학금 규모는 국내 대학 1위 수준입니다(2023년 대학정보공시 장학금 수혜 현황 기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27만 원에 이릅니다.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회진출교육

경희는 취업과 창업, 창직(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 시민사회, 학계, 문화 · 예술 · 체육계, 국제기구, 프리랜서, 대안적 삶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사회진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지속가능한 문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교육과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희는 서울 사립대 중 가장 많은 교비를 투입해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 실천 역량 극대화

경희는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설정 및 수행하고 지도교수와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독립연구', '독립심화학습', '전환21' 등을 개설해 학습과 실천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경희꿈도전장학'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은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진 석조 건물로, 중앙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741호에 등재됐습니다.

우주에 도전하는
경희 연구력

우주기상 연구에 이어 달 탐사에 도전하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다누리는 달 궤도를 돌면서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측정, 달 자원 조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달 표면 편광 지도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6개의 탑재체가 실렸는데, 이중 자기장측정기를 경희가 개발했습니다. 다누리 탑재체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탑재체입니다. 경희의 연구력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문에 새겨진 '새 천년 지구공동사회 선언문'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서다

경희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편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등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실천적 신지식을 창출하는 동시에 세계 수준의 수월성을 유지하는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역량 기후 문제 해결 · 난치병 치료에 활용

QS 세계대학평가가 처음 시행된 2004년, 경희는 순위권 밖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6년 506위로 순위권에 진입한 후 지속해서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23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산업계 평판도 순위는 2019년 298위에서 꾸준히 올라 최근 5년 내 최고 순위를 경신했습니다. 2023년 산업계 평판도는 세계 22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우수한 연구력입니다.

경희의 연구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술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경희의 설립 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계승 · 발전하며 인류와 문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경희가 학술 역량을 결집해 기후 위기, 식량난, 에너지 고갈, 난치병 문제 등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 통해 연구력 결집

경희의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바이오 · 헬스와 미래과학 클러스터가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 헬스 클러스터는 경희의 강점 중 하나인 의 · 생명 분야를 연계 ·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밀의학, 재생의학, 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질환), 천연물 신약, 의료기기, 건강노화 분야가 중심입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기초과학과 공학의 연계협력을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융합연구 분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 환경, 에너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우주 분야에 주력합니다.

인류문명 클러스터는 빈곤, 기아, 물 문제, 빈부격차, 핵 · 테러 위협, 생태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경희의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새로운 융복합 분야 창출은 물론, 기존 연구를 특화해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국제표준특허 선점

그간 경희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다수의 '세계 최초' 업적을 이뤄냈고, 투명하면서 휘어지는(플렉시블 · Flexible) 디스플레이 실현에 기여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국제표준특허를 선점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대학 최초로 액서스 어드밴스(Access Advance)가 운영하는 차세대 동영상 압축 기술 VVC 특허풀에 표준특허를 등재했습니다. 경희는 우수한 연구력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수입액과 해외 특허 등록 건수 모두 국내 종합사립대 2위에 올랐습니다(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경희는 미래사회를 이끌 과학기술 학문의 융복합형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구현하는 연구와 지구적 난제에 도전하는 창의 ·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스마트팜, 차세대통신,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 빅데이터, 에너지 · 환경, 반도체 · 디스플레이, 실감미디어 · 디지털트윈, 우주 ·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등 9대 중점 융합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기술연구소와 스마트 국방 · 우주 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미래선도형 연구와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우주기상 탑재체 개발

지속해서 우주에 도전해 온 경희는 2012년과 2013년,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1~3기를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희는 이 같은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의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기상 탑재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주기상 탑재체는 2018년 천리안 2A호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천리안 2A호는 기상 · 우주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측 자료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희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우주개발 주관기관인 유럽항공우주국(ESA)과 공동연구를 이어갑니다.

NASA 무인 달 착륙선 과학 탑재체 개발 참여

2022년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KPLO)'에 경희 기술력이 탑재됐습니다. 다누리에는 6개 탑재체가 실렸는데, 이중 자기장측정기를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다누리 탑재체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자기장측정기는 우주 공간의 자기장을 측정해 에너지 전달과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 화성 등 천체의 진화와 기원을 연구하는 데 주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희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CLPS는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달 우주 환경 모니터(LUSEM)를 개발했습니다. 이 탑재체는 2024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 착륙선에 실려 우주로 날아갑니다.

천리안 2A호 우주기상 탑재체, 다누리 자기장측정기 개발 등 우주 분야에서 탁월성을 쌓아온 경희는 관련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확대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국제캠퍼스 천문대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 기술력 탑재

경희는 2012년과 2013년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지속해서 '우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기상 탑재체 개발,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자기장측정기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4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달 우주 환경 모니터도 개발했습니다. 경희가 천문학 및 태양활동과 우주 환경 분야에서 선두 연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대학의 사회적 · 지구적 책무, '공공성' 추구

세계 42위, 국내 2위. 경희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3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인가'를 들여다봅니다. 대학의 사회적 · 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평가 잣대로 삼아 인류와 문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살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대학이 상위권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경희의 사회적 · 지구적 책무 실현의 탁월성이 입증됐습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의 탑'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의 탑'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경희의 평화사상을 함축하는 이 말은 전쟁 없는 평화를 뜻하며 '인간적인 문화세계' 건설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성취하되, 어려운 타인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그 성취를 나누자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향한 경희의 설립 정신

지구 과열 현상과 함께 찾아든 중위도의 한파 현상, 이례적인 폭우, 폭설,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와 국제사회의 경고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진화, 혹은 멸절(붕괴)’, ‘공동대응, 아니면 집단자살’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문명사적 난제를 헤쳐가기 위해 정치가 선린(善隣)의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상 정치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학이 나서야 합니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희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경희가 추구하는 ‘문화세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계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생명과 우주, 역사와 문명의 격동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유하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것이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실천해 온 대학의 사회적 책무

경희는 설립 정신에 따라 대학의 사회적 · 지구적 책무를 실천해 왔습니다. 설립 초인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운동을 펼치며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1965년에는 시야를 한반도 너머로 확장해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의료원을 설립해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는 한편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인류 평화와 공영의 지구공동사회를 향한 경희의 노력은 1981년 UN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후 경희는 1980년대 세계평화운동, 1990년대 네오르네상스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실천의 결합이 경희의 학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3년 세계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했으며, 1986년에는 『세계시민교과서』와 『세계평화대백과사전』(영국 퍼가몬 프레스 발행)을 펴냈습니다. 유네스코(UNESCO)는 경희의 이 같은 노력을 인정해 1993년 교육기관 최초의 평화교육상을 수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는 교육 · 연구 · 실천 확대

경희의 실천 활동은 2009년 개교 60주년 이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을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학술적 성취가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을 확대했습니다. 2009년 5월 세계시민포럼(WCF)과 세계시민청년포럼(WCYF)을 창립한 것은 그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포럼에서 UN, UNESCO, 세계시민단체연합(*Co*NGO), 학술기관, 전 세계 학생은 글로벌 이슈에 관해 토론하며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학풍과 전통은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 설립과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현 글로벌봉사팀)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양 기관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세계시민의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구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1993년 평화교육과 연구에 기여한 성취를 인정받아 교육기관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구적 의제 해결 위한 노력 지속

경희는 매년 두 차례(하계방학, 동계방학) 도움이 필요한 해외지역으로 봉사팀을 파견합니다. 2012년 하계방학 때 몽골에 파견된 해외봉사단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 활동과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대학 최초로 몽골 대통령 훈장을 수훈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선정돼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을 위한 모델을 연구 · 개발했습니다. 현지 주민의 자생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2년간의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수행 지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외 거점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1년 UN 산하 기구인 UNAI(UN Academic Impact)와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세계대학총장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Peace BAR Festival, 미원렉처, 석학 초청 특강, 문명 전환 강좌 등 국제 학술대회와 특강 시리즈를 연중 개최하며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지구적 이슈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그동안 이뤄온 학술 성취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공협력을 활성화해 사회와 시대가 요청하는 지속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구의 공적 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경희는 매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합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활동 모습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구적 실천을 확대하다

경희는 학문의 탁월성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학문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 인류와 문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상을 견지해 왔습니다. 개인과 사회,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해서 모색하며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경희의 전통입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
세계로, 미래로

국제화 국내 1위, 국제 학계 인지도 향상

경희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2023년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에서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 세계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은 외국인 교원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제 공동연구 비율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제화 순위가 높다는 것은 경희에 대한 외국인 학생과 국제 학계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 결과입니다. 최근 경희는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함께 경희의 전통 '학문과 평화'의 의미를 심화 · 확대해 지구문명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매년 여름방학에 세계 석학과 국제 활동가를 초청해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교류 협력으로 국제화 선도

세계와 인류를 향한 교시, 교육이념에 따라 경희는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구적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합니다.

‘세계 속의 경희’ 84개국 620개교 교류 협정 체결

경희의 교시와 교육이념은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와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편, 전 세계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으로 ‘세계 속의 경희’를 구현해왔고, 그 노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경희는 전 세계 84개국, 620개교의 자매교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와 인류를 위한 경희의 노력은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을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고등교육의 힘으로 인류평화를 구현한다”는 신념으로 IAUP 창립을 이끌었습니다. IAUP는 세계 각국 대학 총장의 상호협조를 통해 학술문화 향상과 교류,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IAUP 창립총회는 196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어 1968년 6월 18일 2차 IAUP 총회가 경희대학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경희는 국제 교류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이론적 · 실천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전 세계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온 경희는 해외대학과 교환학생, 전공연수, 단기연수, 복수학위 등 다양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학과 전공 교육 관련 연수뿐 아니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타 문화 이해 능력 향상을 돕고, 다양한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류 협력 수준도 심화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KHU-UN/국제기구 인턴십입니다. 매년 1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해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인턴십을 통해서는 국제 인권을 주제로 한 사전 연구 활동에 이어 후속 활동(스위스 제네바 파견)을 펼치게 됩니다.

석학 · 활동가와 함께하는 강의 및 연구 확대

경희는 석학을 영입해 학생들에게 세계 지성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Peace BAR Festival, 미원렉처, 석학 초청 특강 등 국제 학술대회와 특강 시리즈를 연중 개최합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GC)을 개설, 세계 석학과 국제 활동가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GC는 경희를 대표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7월 4주간 지구적 의제를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의와 함께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과 비정부기구(NGO)의 인턴십도 이어집니다. GC는 2006년 첫 학기를 개설한 이후, 매년 500여 명의 국내외 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국가를 초월한 학제 간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활발한 국제 교류 협력 덕에 많은 외국인 학생이 경희대를 찾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희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입니다.

경희는 '2023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국내 대학 1위에 올랐습니다.

싱크탱크 · 국제기구와 인류의 미래 전망

2015년 5월 22일~24일, 경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IAUP가 총회 창립에 기여한 경희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기념식 주최를 제안했습니다. 경희는 2011년에도 유사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UN 산하 기구인 UNAI가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국제회의를 경희대가 공동 주최할 의사가 있는가를 타진해 왔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것이 경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여 2011년 9월 'UNAI-경희 국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UNAI-경희 국제회의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를 주제로 뉴욕 UN 본부와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5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고등교육의 지구적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해 매년 개최해 온 Peace BAR Festival은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o*NGO),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 로마클럽 등 세계 싱크탱크, 국제기구와 함께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공공협력 강화

경희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야를 확대, 지구적 차원의 공공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뤄온 학술 성취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공협력을 활성화해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섭니다.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 경희가 펼쳐나가는 미래입니다.

경희가 글로벌 공공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행복과 가치, 더 나은 미래는 지구가 건재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개발 편향의 현대적 삶의 양식이 우리 삶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주어진 막중한 과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경희는 그동안 이뤄온 학술 성취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공협력을 활성화해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섭니다.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 경희가 펼쳐나가는 미래입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본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미래대학 ‘꿈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미래대학 인프라 확충

학생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경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의 산업 · 혁신 · 인프라에서 세계 20위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대학의 사회적 · 지구적 책무 수행을 독려합니다. THE는 SDG 9번 목표인 산업 · 혁신 · 인프라 평가를 통해 대학이 자체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 ·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장려합니다. 경희가 지속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학술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다

‘경희 캠퍼스’는 국내에서 녹지 공간이 가장 많은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힙니다. 경희 캠퍼스가 그 명성을 넘어 미래대학 ‘꿈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학술의 탁월성 위에 희망의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합니다.

대학의 비전 반영한 경희 캠퍼스

경희는 195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캠퍼스를 건설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본관 석조전을 비롯해 현재 서울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과 자연경관 조성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의 이념과 가치, 비전에 따라 캠퍼스의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계획해 건물을 세웠습니다. 1979년 시작된 국제캠퍼스 건설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설로 명확한 비전이 캠퍼스에 반영됐고, 체계적이면서 조화로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문 등용문(登龍門)에서 '文化世界(문화세계)의 創造(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교시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본관 석조전, 그 우측 언덕으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평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캠퍼스에는 경희의 미래지향적 이상향이 담겨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경희는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에는 교육, 연구,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비전이 반영됐습니다. 경희는 학술의 탁월성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구공동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1단계 공사를 완공한 경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서울과 국제 양 캠퍼스와 바이오 · 헬스 클러스터, 미래과학 클러스터 등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2017년에는 구성원의 꿈과 포부를 지원하고 미래대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Space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善昇館)'을 개관한 데 이어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Space21'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산학협력관 건립, 글로벌타워 신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Space21' 사업으로 경희 캠퍼스는 최적의 교육, 연구, 실천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善昇館)', 외국어대학 로비

학문 융합 지원·촉진하는 융합기술연구소 개소

경희는 다양한 학문 계열의 융합을 지원 및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융합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비티,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 빅데이터, 실감미디어 · 디지털트윈, 에너지 · 환경, 우주 · 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스마트팜 등 9대 중점 융합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9개 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융합센터는 학문 간 벽을 허물어 융합연구, 융합교육, 산학협력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연구와 실습 위한 서버실, X-Space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AI 서버실과 X-Space를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서버를 구축해 안정적인 인공지능 연구와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X-Space는 실감미디어 실습 공간으로, 메이커스페이스나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X-Space 내 메타버스 스튜디오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 VR 모델링 기술과 실시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동한 가상 강의실은 원격 현존감을 극대화해 원격 강의 수강생에게도 현장 수업 못지않은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오픈랩, 창업센터 등 학생 창업 활동 지원

경희는 캠퍼스타운사업 추진과 홍릉바이오 · 의료창업센터, 삼의원창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창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진출은 물론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화시키고 지원해 주는 공간인 '오픈랩(Open Lab)'도 운영합니다. 오픈랩에서는 메이커(Maker) 교육과 각종 장비 교육, 특강, 체험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립니다. 또한 학생기획단을 두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해 교내 창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 실습 기자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 X-Space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대학다운 미래대학’ 인프라 구축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탁월성 위에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고 그 성취를 실천으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 학문 분야 아우르는 서울 · 국제 · 광릉 3개 캠퍼스

한국전쟁 전후에 판자로 지은 교사 세 채에서 그 역사를 시작한 경희대학교는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광릉캠퍼스를 갖춘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설립 초 3개 학과에 불과했던 교육 편제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학, 공학, 예술, 체육 등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23개 단과대학, 91개 학과(부), 15개 대학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희는 각각의 캠퍼스를 특성화한 종합캠퍼스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특성화했습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은 경희의 평화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시켜왔습니다. 경희대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수는 1,396명, 직원 수는 524명입니다. 재학생 수는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 “피란지 판자 교사에서 3개 학과로 시작한 경희는 3개 캠퍼스, 91개 학과(부)를 둔 종합대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술과 실천의 결합으로
평화로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경희정신을 싹틔우고 꽃 피운
'학문과 평화'의 요람입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관교육체제,
전인교육체제, 전일적 학술체계, 지구적 실천 운동이
서울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14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는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재를 키워낸다는
설립 목표에 따라 사회맞춤형 교육, 산학협력 교육, 국제화 교육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합대학과 융합전공을 신설해 선도적인 융합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전화 031)201-3114

광릉캠퍼스

광릉캠퍼스에는 국내 최초의 전문적인 평화교육기관
'평화복지대학원'이 자리합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종합문명사회를 선도할 실천적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화 구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 대학 최초로 UNESCO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전화 031)570-7012~6

학술 탁월성 추구하는 단과대학 23개 · 대학원 15개

경희대학교는 단과대학 23개, 대학원 15개(일반대학원 1개, 전문대학원 4개, 특수대학원 10개)를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해 온 경희는 자율운영제도를 통해 단과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위기관에 학사, 인사, 발전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권한을 부여한 자율운영으로 각 단과대학(원)은 학과별 · 전공별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단과대학과 대학원은 학과별 · 전공별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전 학문 분야가 고루 발전했습니다. 각 학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는 대학발전으로 이어지며 각종 대학평가에서 순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교양교육을 혁신해 2011년 전문 교양교육기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치열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대학교육과 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창의적 교육 방법을 통해 삶과 문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과대학 인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인문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정보화·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설 인재, 문화정보 콘텐츠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정경대학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로 한국사회의 지적 담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융합적 지식, 지구적 시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사회를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미디어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국제통상학전공, 국제금융투자학전공)

경영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경영 인재를 양성합니다. 책임경영, 의료경영, 금융보험, 재무회계, 빅데이터경영 등 경영대학의 5대 강세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기여 확대는 물론, 미래학과 역사, 경영철학에 근간을 두면서 다가올 사회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경영 분야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호텔관광대학 '2023 상해 학문 분야 평가'에서 세계 10위에 오르며 학술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호스피탈리티·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편제를 개편했으며, 복수학위제(휴스턴대, 홍콩이공대), 디즈니 인턴십 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spitality경영학과, 조리&푸드디자인학과,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관광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이과대학 자연과학의 기초와 응용을 두루 연구·교육하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유관 기관으로 첨단 연구기자재를 갖춘 중앙기기센터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각종 생물 표본을 보유한 자연사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지리학과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 내 또는 인접 학문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융합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주력하면서 미래 생산적 생활과학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소품을 디자인, 생산, 활용하고, 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 생활서비스 제품의 생산기술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

의과대학 최상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학연구 교육과정,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인, 환자 진료와 진단뿐 아니라 의료산업화, 의료창업 등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의료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의예과, 의학과

한의과대학 타 학문과 연계·융합이 가능한 기초교육, 임상실습센터를 통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와 임상교육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전문화한 기초연구센터와 임상시험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통해 통합의사로서 자질은 물론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임상의와 연구 인력을 배출합니다.

한의예과, 한의학과

치과대학 우수한 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치과 임상의와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합니다. 부속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임상교육이 이뤄지며, 3, 4학년생은 교수와 전문의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임상술기를 강화한 교육을 기반으로 2023년 75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100%의 합격률을 달성했습니다.

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융복합 약학 교육을 실시합니다. 체계적인 이론 및 임상교육을 통해 임상 및 의약품 개발 전문 약학인, 약학과 의생명과학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간호과학대학 동서간호의 학문적 접근을 통해 인간, 환경, 건강, 간호에 대한 전문직 간호사로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간호사, 공감하고 소통하는 간호사, 간호의 전문화를 실현하는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간호학과

음악대학 한국음악을 세계화하고 음악성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폭넓은 예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체 무대시설을 갖춘 리사이틀홀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과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관현전공(현악, 관악, 타악), 피아노전공)

미술대학 전통적인 미술대학의 구조와 형식 위에 뉴미디어 및 영상 등의 커리큘럼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예술인을 양성합니다. 학생의 재능을 찾아주는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해외대학과의 학점 교류, 사회와 연결된 실천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학부(한국화전공, 회화전공, 조소전공)

무용학부 무용예술의 창작활동과 이론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합니다. 1학기 레퍼토리 월례발표회와 2학기 창작 작품 월례발표회를 통해 기존 작품 습득을 통한 새로운 작품 창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

자율전공학부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고 입학해 인문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등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후 적성 및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만 선택할 수 있는 글로벌리더전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은 법학과 연계한 5개의 트랙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리더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공과대학 창의성, 전문성, 인성을 모두 겸비한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함께 선진 이론 및 실용적 학문에 바탕을 둔 실무 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창조적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전자정보대학 반도체, 스마트 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자공학 관련 기술, 공학과 의학을 접목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곳입니다. 경희는 통신 관련 분야에서 '2023 상해 학문 분야 평가' 세계 24위, 국내 1위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심화 전문가 교육, 신산업 융합 전문가 교육에 주력합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인재, 융합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응용과학대학 기초과학에서 실제 첨단 과학기술 활용까지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과별로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며, 전공 간 연계성을 증대해 융합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산업기술에 적용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우주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산업적 응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생물 산업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해 생명자원과학연구원과 생명공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전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스마트팜과학과

국제대학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전문가를 키워냅니다. 국제학과는 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개발협력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국제학 단일 전공, 혹은 각 분야의 심화 전공 트랙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과

외국어대학 학생이 전공 언어를 포함해 외국어를 2개 이상 숙달하도록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어학 능력 함양을 돕습니다. 부설 비교문화연구소를 두고 언어가 빚어내는 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찾아내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예술·디자인대학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지닌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 콘텐츠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영상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창조적 조형 능력을 지닌 실험적 아티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 도예학과

체육대학 각종 스포츠 전문 인력과 지도자를 키워내는 한편, 건전한 여가생활, 생활체육, 체육 발전사를 연구합니다. 스포츠과학연구원, 운동처방실, 측정평가 및 해부생리실험실, 저압·저산소트레이닝센터 등 연구기관과 체력 트레이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융합전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합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인재를 선제적으로 길러냅니다.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의 학생은 기존 전공 대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전공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국내 엔지니어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공학, 언어, 해당 지역 지식을 갖춘 융합 인재의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이에 창의적·실질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외국어 소통 능력과 글로벌 문화 감각, 인문학적 소양, 최신 정보기술(IT) 개발 역량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는 실천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일본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4D아트 융합전공 4D 예술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학습 모델을 활용해 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개인의 창조적·창의적 역량을 한층 높이고, 종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길러냅니다.

도예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 예술과 공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으로 인문학적 사유, 예술적 표현,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경쟁력이 되는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디지털콘텐츠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스마트팜공학 융합전공 미래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운영 및 재배연계 농업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 ICT 분야 특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마트팜과학과, 유전생명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사회과학 융합전공 미래기술사회, 데이터사이언스, 지속가능발전 등 3개의 트랙을 통해 특화한 심화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미디어학과, 무역학과

과학지능정보 융합전공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문제에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학 분야의 깊이 있는 사고력과 도메인 지식,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기술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실감미디어 융합전공 가상현실, HCI(사람과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을 중심으로 UX/UI, 디자인, 게임, 콘텐츠, 문화, 예술, 창업, 경영과의 융합 교육을 통해 실감미디어 산업과 학문을 주도할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건국대, 계명대, 계원예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 K-Pop 보컬, 뮤지컬 보컬, 연기, 댄스, 뉴미디어 크리에이팅 등 실연 예술(Perfoming Arts)의 장르 간 균형과 상호 관련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통해 멀티 엔터테이너를 양성합니다.

연극영화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광역단위

경희는 2024학년도에 사회과학광역, ICT광역, 생명과학광역을 신설합니다. 학과의 벽을 허물어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융합교육·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1년간 진로 탐색 후, 해당 광역단위 내에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광역 정경대학(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제외),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제외),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ICT광역 전자정보대학(생체의공학과 제외),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생명과학광역 생명과학대학

일반대학원

전공 심화 학습, 융복합 연구와 산학협력, 복수학위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0개 기관과 공동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등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대학원 혁신지원사업, 인공지능 융합혁신인재 양성사업, 융합미래통신 혁신인재 양성사업,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ERC),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ITRC), 대학중점연구소,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과 제도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를 두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 과목 영어 진행, 외국인 학생 비율 50% 이상 유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해외 유수 대학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교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직업적 전문인 이전에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경희의 창의적·진취적 학문 특성을 결합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가치관과 윤리관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해외 유수 로스쿨과의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육대학원 스포츠의·과학,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태권도학 등 전공영역의 특성화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체육지도자와 스포츠과학자를 배출합니다. 저압·저산소 훈련장을 두고 각종 실험에 활용하고 있으며, 영양생화학실험실, 운동처방 및 부하검사실, AT센터, 카이로프랙틱, 스포츠과학연구원 등과 협력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양 의학을 접목한 신의학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서양 의학과 생명과학, 영양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 융합 대상을 사회학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으로 개설한 노인학과를 비롯해 동서의학과, 의학영양학과, 융합건강과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내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AMP)과 경영컨설팅 MBA, 의료경영 MBA, 문화예술경영 MBA 과정을 개설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경영전문가를 선제적으로 양성해 왔습니다. 산업 베이스 특화교육을 중요시하며, 경영학과, 세무관리·회계학과,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의료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E-MBA, 부동산학과, Global MBA(외국인), Military MBA(군위탁)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사를 길러냅니다. 이외에도 학교현장의 교원, 교육전문가를 위한 재교육과 연수를 실시합니다.

간호대학원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고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을 선도하는 상급 간호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노인전문간호사전공,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을 운영합니다. 미래 건강위험 예측 및 분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중재 및 근거 개발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간호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대학원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공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가-시민사회 통합교육기관입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교육과 연구, 의료관리, 현대복지국가의 핵심인 사회복지,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국제개발협력)에 이르는 다양하고 유용한 공공성 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책학과, 의료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NGO학과, 글로벌거버넌스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평화복지대학원 세계평화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영구히 구현하는 길을 걷는 평화 지향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인류평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교육하면서 평화 구현에 기여한 실천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학 최초로 1993년 유네스코(UNESCO) 평화교육상을 받았습니다.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학전공)와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국제평화전공, 평화안보정책전공)를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디어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저널리즘학과,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미디어플랫폼학과를 개설했습니다. 1인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 커머스 전문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K-Culture 전문가, 메타버스 전문가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대학원 글로벌기업법, 자산관리법,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 지식재산법, 인터넷법, 건설법, 조세법, 관세법 등 학문 분야별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공공법학과, 기업법학과, 조세법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 특별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대학원 호텔경영, 관광, 조리외식경영, 컨벤션전시경영, 와인·소믈리에,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등 6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호스피탈리티·관광(Hospitality&Tourism) 분야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문화관광산업 경영자과정(First-Class Leader), 와인·워터·티 마스터 소믈리에 전문가과정, 경희대-브루웍스 비어 마스터과정, 커피스페셜리스트과정 등 특별연구과정도 두고 있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학과, 복지경영학과를 통해 급격한 산업 분야 간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기업 제휴 MBA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재교육 과정인 스마트기술경영학과와 AI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대중예술과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창업 등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지닌 멀티 엔터테이너,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의·치·한 협진 선도하는 의료기관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협진으로 최적의 진료와 연구, 교육 활동을 펼칩니다. 산하에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두고, 동서의학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신의학 분야를 개척하며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양 의료기관은 2018년 후마니타스암병원을 개원한 데 이어 2019년 경희대학교의료원 단일 체제로 개편하며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이 의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료기관, 융합연구로 신의학을 창조하는 연구기관, 배려와 존중, 탁월함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소외된 세계시민을 섬기는 봉사기관으로 거듭납니다.

> "경희대학교의료원이 의료협력을 확대, 대학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희 의료기관은 의료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환경파괴에 따른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나갑니다.

경희의료원

경희의료원은 1971년 개원했으며, 의사 양성이나
환자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인 질병을 몰아내어
'인류사회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4기 상급종합병원(2021년~2023년)에 재지정돼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전화 02)958-8114
산하 의료기관
경희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후마니타스암병원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06년 개원 이래 '수술 잘하는 병원'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ABO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간-신장 동시 이식 등
고난도 수술을 해왔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환자 경험 평가 종합병원 1위,
뉴스위크가 선정한 대한민국 상위 100대 병원에서 종합병원 1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전화 1577-5800
산하 의료기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TOWARDS GLOBAL EMINENCE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